

[번역기획] 국학 번역의 현황과 과제

한문원전번역 범례설정 시급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704>

2001년 05월 16일 (수) 00:00:00 심경호 고려대 webmaster@kyosu.net

심경호/고려대 한문학

지난 얼마간 번역논의가 불붙었지만 한문으로 쓰여진 텍스트, 즉 동양학과 국학번역은 그 가운데 소외되어 있었다. 졸속한 근대화로 무작정 과거를 청산했던 우리 역사를 반성한다면 고려타분하다고 치부되어버린 한문고전을 이제 번역논의의 중심에 옮겨놓아야 마땅할 것이다. 이런 토대위에 심경호 교수는 ‘완전번역’, 주석달기 등 한문고전 번역의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부터 고전번역을 학술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풍토에 대해 실용적인 측면까지 상세히 고찰하고 있다.

차례 ①번역의 식민성과 탈식민성 ②번역과 근대국어의 탄생 (3)동양학·국학 번역의 현황과 과제 ④번역과 탈식민의 모색

그간에 한문 고전에 대한 연구는 ‘동양적인 것’과 ‘우리 것’의 실체를 객관화시키고자 해왔다. 이미 일제강점기에 민족주의 및 진보주의 진영은 한문 고전자료를 정리해 새로운 한학을 태동시켰으며, 양백화(梁白華: 1889~1944년) 등 중국문학 연구자는 중국의 고전을 현대어로 번역하기 시작했다. 다시 1960, 70년대에 이르러 비판적 지성들은 한국 한문고전 속에서 내재적 발전의 힘을 확인하고 주요 원전 자료들을 주석·번역했으며, 중국문학·중국사학·중국철학 분야에서 독자적인 중국학을 수립하기 위해 번역에 힘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 한문고전의 번역과 관련해 민족문화추진회,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많은 성과를 내어 왔다.

1990년대 후반 이후로는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유산과 사유양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농후하게 되면서 한문고전에 반영된 갖가지 事象에 대해 구조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새로운 問題 (topica, problema)를 발견하고자 부심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의 지성사 및 문화사를 서로 대조하고 비교하는 연구가 확산되고 있고, 한문 고전의 연구 방법이 보다 설명력과 타당성을 지닐 수 있도록 메타 비평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러한 주제적 접근, 비교문화론적 접근, 방법론적 접근은 한문고전의 일차적 가공과 이차적 가공을 거쳐야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한문고전들을 주석하고 번역하는 일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요청되고 있다.

한문원전번역 범례설정 시급

한국 한문고전의 경우에는 1970년대 이후 많은 번역서가 나왔으나, 번역의 방법이나 수준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개선될 여지가 많다. 한문에 현토한 방식의 번역이 있는가 하면, 주석을 첨부하지 않거나 원문의 파악이 미숙해 번역이 잘못된 예도 없지 않다.

중국고전의 번역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나, 역시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현재까

지 일반 독서시장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것은 현토본 ‘논어’와 현대어 번역물 ‘장자’라고 한다. 그밖에 經部의 사서오경, 史部의 정사류·고사류·전기류·정서류, 子部의 유가류·병가류·법가류·농가류·의가류·예술류·잡가류·술수류·소설가류·도가류·유서류, 集部의 주요 고전들이 번역되어 있지만 특정 고전 자료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번역의 방법과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한문 고전의 번역 방법과 수준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김용옥의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1985)에서이다. 최근에는 오진탁의 ‘고전번역서평: 한문원전번역의 중요성과 과제-노자의 경우’(‘철학연구’40, 1997 봄호), 문제곤의 ‘고전 번역의 현주소: ‘주역’의 우리말 옮김에 대한 분석’(‘오늘의 동양사상 창간호’, 1998), 박원재의 ‘‘장자’는 왜 번역되어야 하는가’(‘오늘의 동양사상’ 2호, 1999) 등의 비판적 검토가 나왔다.

사실 지금까지의 한문원전 번역은 명확한 범례를 세우지 못한 예가 많았다. 인용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주석이 완전하지 못한 형식적 결함도 있었다. 게다가 자료의 1차적 가공을 스스로 하지 않았다거나, 선진적 연구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원론적 결함을 지닌 예도 적지 않았다. 이를테면 ‘장자’의 경우, 감산의 ‘장자내편주’를 저본으로 번역하면서 다른 설과 대조를 하지 않았다거나, 일본의 ‘全釋漢文大系本’에 수록된 일본측 주석과 번역을 대본으로 사용한 예도 있다고 한다.

명확한 범례를 세우지 못한 채 주석과 번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한국 한문고전의 연구에서도 지적된다. 원전 자료의 문헌적 가치나 내용적 특성을 숙지하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조사한 뒤에 번역에 임하는 자세가 아쉽다.

우리나라의 학계는 번역을 본격적인 학술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 풍조가 있다. 전문 번역이 국책기관이나 연구소, 혹은 문중의 사업으로 이뤄져서 개인의 연구 성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또 전문 번역물을 출간하려는 출판사도 상대적으로 적으며, 작업한 만큼 정신적, 물질적으로 보상을 받지도 못한다. 따라서 전문 연구자들보다는 비전문가나 초학자의 손으로 번역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것은 이웃의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와 상당히 다르다.

일본의 경우 중국학계에 군림한 거인이었던 요시카와 코오지로(吉川幸次郎)는 교토 연구소에 재직했던 기간에 ‘尙書注疏’를 완역하면서 ‘文史哲’의 종합을 추구했고, 중국인의 사유와 심리 양식에 통할 수 있었다. 그는 ‘注疏’를 읽는 것은 심리학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 번역물은 그의 전체 학술활동 가운데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그리고 한문고전의 주석 및 번역 방식은 출판 문화의 환경과 독서풍토에 의해 제약을 받기 마련이다.

正本 미확정, 번역 혼란으로 이어져

필자는 지난 해 6월에 김시습의 ‘금오신화’를 새로 주석하고 번역해서 출판했는데, 한학자로서 역시 ‘금오신화’의 번역본을 내신 적이 있으셨던 이재호 선생님께서 격려의 서한을 주셨다. 그

서한에서 이재호 선생님은, 당신께서 번역본을 내실 때 출판사 사정으로 치밀한 주석을 달 수 없었던 점이 안타까웠노라고 술회하셨다. 나도 번역본을 내기까지 여러 가지 갈등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처연한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어 유가 경전만 하더라도 한·당의 注疏와 송·원의 新注를 종합하고, 새로운 학설을 참조해 주석까지 곁들인 본격 번역서는 그리 많지 않다. 그 이유는 반드시 연구자들이 나태하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출판의 단계에서 레이아웃의 방식, 주석을 添入하는 방식을 독자적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것도 한가지 원인이다. 독서 시장이 좁아서 상세한 譯註本이 통용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그러한 출판물을 기획하지 않는 것도 다른 한가지 원인이다.

우리처럼 독자적인 한학(중국학)을 수립하고자 부심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근세에 이르러 전통 한학자들이 注疏, 新注, 일본 학자의 주석을 종합한 형태의 1차적 가공서와 새로운 연구성과까지 참조한 번역서가 여러 출판사에서 총서나 단행본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간행됐다. 즉, ‘漢文大系’(富山房, 1908-9년 발행, 1972년 증보판 발행, 1984년 증보판 제2쇄), ‘新釋漢文大系’(明治書院, 1962), ‘全釋漢文大系’(集英社, 1975)는 일본 중국학의 성과를 집적한 주요한 성과이다.

우리의 경우, 국학 자료든 중국학 자료든 한문 고전들 가운데는 아직까지 正本으로 확립되어 있지 못한 것들도 많다. 전문 연구자들이 나서서 정본을 만들고, 다시 그것을 대본으로 주석과 번역을 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연구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접 과학의 연구자들이나 일반 독자들이 한문고전의 현대적 의의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기본 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때에 더욱 전통 한학의 방법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전통 한학은 ‘小學’의 문헌학적 방법을 나름대로 발전시켜 왔고 그 방법을 義理學에 연결시켜 매개적 현실참여의 경험을 축적해 왔다. 물론 전통 한학은 근대적 실증주의 학문방법을 구축하는 데까지 나아갔다고는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엄밀한 독법을 통해 주석을 종합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번역을 시도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전통을 바로 지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번역작업의 제도적 지원 희망적

한문 고전의 연구자들은 고전 속에서 미래의 삶에 유용한 중심사상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의 현재적 가치를 논해야 한다. 나아가, 민족 공동체의 차원에서 지적 고유성과 보편적 가치관을 지닌 주체를 확립하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해석적’ 작업은 주석과 번역이라는 기초 작업을 토대로 해야 비로소 탄탄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학술진흥재단은 동서양고전번역의 지원사업을 통해 한문고전의 본격적 번역을 유도하고 있다. 대단히 고무적이다.